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두운스님 창건한 용문사
한국의 명찰(24일 11:10~12:00)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는 지장도량 사찰로 870년에 두운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다.

장수마을 혼자계곡 탐방
실크로드(25일 12:30~13:20) 세계의 지붕인 파미르 고원을 넘어 파키스탄에 들어간다. 살구꽃과 장수마을은 유망한 혼자계곡을 방문하고 불교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칸다라 평원을 향한다.

늦깎이 가수 김국환 출연
김병조의스타쇼(26일 11:10~12:00) 육십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리고 하는 늦깎이 가수 김국환씨. 녹내장으로 아들의 TV 출연도 못보고 돌아간 어머니를 생각하며 끝내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저 진실되게 사는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김국환씨의 삶을 엿본다.

청소년 복지·포교문제
TV 진행 상담(27일 11:10~12:00) 변화를 좇아 끊임없이 달리는 오늘의 청소년! 불교는 그들에게 어떤 안내자가 되어야 할까? 희망찬 내일의 불교를 기대하며 청소년의 복지, 포교문제를 짚어본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3MHz(부산) FM 83.7MHz(대구)
숫자로 풀어보는 불교
퀴즈대장경(24일 15:05~15:55) 해인사 대장경판의 수, 위경의 수, 아함에 나오는 경의 수, 결집의 횟수, 부처님의 전기 수는? 생방송 퀴즈대장경은 '숫자로 보는 불교'를 주제로 퀴즈대결을 펼친다.

전남대 연기영교수 강연
오늘을 이끄는 불교(25일 11:05~11:20) '불교와 의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남대 의과대학 해부학과 연기영 교수의 강연이 일주일간 펼쳐진다.

순연철교수의 신생활
피안을 향하여(28일 14:10~14:45) 순연철 교수의 미술세계와 신생활을 들여다본다.

안홍호씨의 예술세계
다큐멘터리 한국의 장미(30일 14:00~14:45) 단정적인 안홍호씨의 예술세계를 찾아가 본다.

BBS 개국 5년... 신행길잡이 '평가'

지방국개설 '큰 성과'... 전문성 확보 '숙제' '거룩한 만남' '자비의 전화' 등 포교 한몫

"불교방송의 자비의 전화는 저의 교과서입니다."
"불교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기복신앙에 젖어 있었음을 알게 됐고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1일은 불교방송의 다섯 번째 생일날. 그동안 불교방송을 들은 불자들의 평은 '신행의 길잡이'로서의 역할로 모아지고 있다. 또 일부 타종교의 성직자들도 "불교방송을 통해 불교를 배운다"고 말하고 있다.

교해 불교방송의 노하우가 집적된 획기적인 기획물이나 특집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경영상의 문제로 지나치게 단편적이었던 관계로 최근의 사례로까지 비화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다 열린방송으로의 구조와 인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 오후2시 용인자연농원에서 '창사 5주년 축하공연'을 가졌다. 또 창사 5주년에 맞춰 '세계불교문화전' '한국대장경전산화' '음악공양의 밤' '산바다, 가람의 하모니 대공연' '인도무용극 공연' 등 대형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또 개회 백주년 해방 50년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개화송 이동'

이밖에도 각종 캠페인과 학술조사단의 탐사, 문화재관련 보도특집, 세계화관련 대토론회 등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 불교방송이 '포교와 신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개국 5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거룩한 만남' 2백회 기념행사 사진.

BBS 봄철 프로그램 개편

불교방송은 전국방송원년과 창사15주년을 맞아 정보와 특화성강화를 핵심으로 프로그램들을 개편한다.
5월1일부터 시행될 이번 개편은 세계와 역사속의 한국불교역사를 재고하는 주중특화 프로그램과 라디오의 정보성, 깨달음의 사회화를 구현하는 포교포교프로그램의 강화가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밖에도 '창선이야기'(05:45~06:00) '연제나루불교'(금:14:00~15:00) '생방송BBS 정보시대'(18:00~20:00) '날의 창가에서'(24:20~01:00) '일요초대석'(일:14:00~15:00) '우리의 찬불가'(15:05~15:45) '불교설화'(16:05~16:40) 등 11개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인다.

매체포교 사명 주력 '눈길'

'불교설화' 등 11개 신설
'피안을...' 등 12개 폐지

관심을 반영해온것과는 달리 매일 2시10분~3시까지 일주일동안을 일일 단독프로그램으로 편성한다.
이시간에 신설 프로그램은 세계와 역사속의 한국불교의 역할 재고를 모색하는 '세계의 불교는 지금'과 불교환경단체를 탐방하는 '환경파트너/작은것이 아름답습니다' 한국불교 1천6백년사를 드라마로 들려주는 '바로는 불교역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진솔하게 다뤄민타리로 구성하는 '생방송! 도반

을 찾습니다'가 신설된다.
이밖에도 '창선이야기'(05:45~06:00) '연제나루불교'(금:14:00~15:00) '생방송BBS 정보시대'(18:00~20:00) '날의 창가에서'(24:20~01:00) '일요초대석'(일:14:00~15:00) '우리의 찬불가'(15:05~15:45) '불교설화'(16:05~16:40) 등 11개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인다.

"정보시대 종단위상 강화"

총지중 추진 강공회
불교총지중(총리위원장 안효강)은 지난18일부터21일까지 제45회 총지중공회를 전국 각 사원스승들이 전원 참석하 가운데 총리원에서 성황리에 거행했다.

이날 본당 등 수도권지역 포교부실이 위태로워 단정했다. 수도권 일대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기독교 교회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 불교 포교당의 수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미흡한 실정이다.

목담스님 탄신 1백년

태고종, 용화사서 법회
태고종 전남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스님)는 지난 7일 진충무왕장 운제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하 가운데 목담스님 탄신 1백주년 기념사상 강연법회 및 극락보전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용화사 주지 수진스님은 "극락보전은 40평의 규모로 금강계단을 인치할 계획이며 목담스님의 법문집과 스님의 일대기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의통신

남북불자 합동 백일재 봉행

고베지진 희생 동포위해
제일본한민족불교도연합회(회장 태연스님)가 제일본조선불교도협회와 합동으로 고베지진으로 희생된 우리 동포 영가의 백일재를 지난 25일 봉행했다.

류의 장을 새로이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한 이날 백일재는 兵燹현 교육회관에서 개회신인, 사귀에게, 목님, 반야심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일본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단체는 특히 이날 행사에서 민체화합, 남북민간교류를 통해 통일 분위가 조성 등을 함께 펼쳐나가는 내용의 서약문도 발표했다.

출정범종 귀향 축하법요식

정토진중 정토사
3월26일 히로시마의 정토진중 본원사 정토사(아사에다 주지스님)에서 출정범종의 귀향 축하법요식이 열렸다. 정토사에 있는 이 범종은 소화17년(1942년) 주지스님이 당시 8세일 때 공종당해 나고 아시의 범기공장으로 옮겨졌으나 이용되지 못하고 골 패전을 맞이하였다. 그 후 진중대학과의 실용사에 안치되었다가 53년만에 귀향하게 된 것이다.

아시아에 주지스님은 이날 법요식에서 축사를 통해 "전쟁당시 탄환을 만들기 위해 공종된 후 몇 년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3백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은 놀라운 일이다. 범기공장으로 보관되는 과정에서 금이 생기는 했지만 축하의 의미로 흥백의 띠를 두르고 종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겐 전쟁의 참상을 겪어 온 전하의 증인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전쟁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새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토사는 이 범종을 '명화를 기원하는 범종'이라는 새이름으로 부르기로 했다.

'혼란' 속 부처님맞이 행사 다채

다, 곳곳서 봉축 성황
지난 1월의 고베남부지진과 지하철 독가스 사건 등으로 전국이 혼란하고 급격한 엔고로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인 '하나마쓰리'가 일본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반 행사에서는 시내가장행렬을 거행하는 대신에 자진 피해지역에 원조금을 보내기로 했으며, 경년에는 신도들이 직접 만든 꽃무대로 그 열기를 더했다.
상접가로 변화한 길상사(吉祥寺)에서는 부처님을 업은 하얀 코끼리의 가장행렬이 슬러, 어린이, 일반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폼비니 합창단이 풍속가를 부르고, 일차(불상에 감자를 부리는 일) 등의 행사도 어린이들에 의해 행해졌다.

신도시 포교 '발등의 불'

부족한 상태이다. 게다가 타종교의 선교활동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어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 수원 병영사 입구에 대형건물이 들어 선다는 게

확이 알려져 병영사 스님들이 이를 강력 저지한 일은 '장소불문'의 전도열성을 잘 드러낸 계기였다.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되지만 최소한 빈구석 없는 포교망 구축을 해야 한다는 포교신도시의 부진을 보는 우려의 목소리다.
수도권 신도시 전체인가 가운데 상당수 불자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둘째 종단과 본사구 사찰 차원의 새로운 포교전략 수립은 '발등의 불'이 분명하다.

목탁소제

김중근 (취재1부 기자)

원력있는 스님들이 신도시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신도시 포교의 심각함을 말했다.

30초 건강비법 "편작전자침" 공개

Advertisement for '편작전자침' (편작 전자침)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device and detaile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various health conditions like back pain, neck pain, and arthritis. It includes information about the manufacturer, '특수센터가 스스로' (Specialty Center for Self), and contact details for a distributor.

Advertisement for '수신자 부담서비스' (Receiver Burden Service) with a phone number 080-922-7777 and details about special offers and services.